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을”

김승수 전주시장이 청년 실업 문제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국회에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 시장은 22일 국회를 방문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의 조속한 법안소위 통과와 본회의 최종 의결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김 시장은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 만나 국토위 법안소위 심사 시 적극적인 심사를 요청하고,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이 사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최종 본회의 의결까지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승수 전주시장, 국회방문 법안통과 촉구

김 시장은 또, 혁신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주호영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새누리당, 대구 수성구)과 정동영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국민의당, 전주시)을 차례로 방문,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이 낙후된 지역과 지역청년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청년희망법인 만큼 법안통과를 위해 큰 힘이 되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김 시장은 지난 7월 전국 혁신도시협의회 소속 단체장과 혁신도시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 대학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법제화를 위한 합동기자회견에서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

채용 법제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이날 국회방문에서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 법안통과 건의에 이어 김광수 의원(전주갑, 예결소위)과 김현미 의원(고양정, 예결위)을 차례로 방문해 내년도 국가예산 주요사업 증액 및 반영을 위한 예산활동도 벌였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주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84억 증액), 세계무형유산포럼 개최(4억 반영), 전통 한지생산시설 구축(5억 반영), 전북 특화형 창업보육지원센터 건립(40억 반영) 등 예결소위 심사과정에서 반영

되어야 할 15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국비확보를 통해 지역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는 다음달 2일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국가예산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남게 하고, 이는 곧 지역대학의 경쟁력으로 이어져 우수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라면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의 조속한 법제화로 지역청년의 내일을 열어 지역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실천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불편 해소”

김순정 전주시의원 주문

전주시의회 김순정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운영과 관련, 원주민들의 불편 해소 방안을 촉구했다.

김순정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명소화 사업으로 주차통제에 따라 원주민들이 주차 문제로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며 원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방안을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명소화 추진 사업으로 주말과 공휴일 118일, 성수기 15일 등 총 133일 정도를 운영일수로 삼고, 통제장소 10개소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한옥마을 전 구역에 주차를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전주시의 엄격한



한옥마을 일대 주차통제는 현실적으로 원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통제 시간이 지난 이후 숙박객들의 주차 문제로 주차난을 포함한 차량의 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로 주차난을 포함한 차량의 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평일 낮에는 가게 앞 주차이용 등에 따른 문제로, 저녁에는 숙박객 주차문제 등으로 애꿎은 원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관련 현 통행금지 지정의 폭을 더욱 넓히는 방안은 소관 경찰서와 재협의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재 기자



김장김치로 훈훈한 정 나뉘요
김장 김치를 담고 있다.

22일 전주한옥마을 내 게스트하우스 이오당에서 전주지검 장호중 검사장과 (사)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 홍종길 이사장을 비롯해 센터 임원, 기자 등 30여명이

전주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전주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8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와 양 구청 민원봉사실을 통해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이번 공시지가는 지난달 31일 결정·공시됐다.

공시지가는 인터넷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http://kras.jeonbuk.go.kr/land_info)을 통해 조회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에 대해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김영재 기자

덕진구, 겨울철 쓰레기 수거 총력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정태현)는 동절기를 맞아 다량 발생이 예상되는 낙엽 및 김장 쓰레기, 연탄재 등 계절 쓰레기 수거·정비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덕진구는 견훤로, 동부우회도로 및 서부우회도로 등 낙엽 집중 발생 노선을 중심으로 매일 10대의 노면 청소차량을 활용해 낙엽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면도로와 인도변도 환경관리원과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해 하루 평균 7.5톤 정도의 낙엽쓰레기 정비에 매진하고 있다.

덕진구는 12월 중순까지 가을철 낙엽 및 낙과물이 적기에 차질 없이 수거될 수 있도록 기간제 근로자 6명을 추가 투입하고, 23일은 덕진구 과·동 전 청원이 현장 출장해 일제 대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서해상 중국어선 1척 침몰 실종자 1명 구조

군산 어청도 남서쪽 약 167km 해상에서 중국 석도 선적 81톤급 어선이 침몰한 사고와 관련, 실종됐던 중국선원이 극적으로 구조됐다.

군산해경은 22일 오후 2시20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67km(전남 흥도 북서쪽 약63km) 해상에서 81톤급 쌍터망(저인망) 어선 노영어56278호가 침몰했다는 신고를 중국 측으로부터

터 접수했다고 밝혔다.

중국 MRCC(해상수구중심센터)에 따르면, 쌍터망 어선인 A호와 B호가 이동 중에 B호가 침몰(원인 미상)했으며,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선원 7명이 A호에서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 중 한명은 실종된 것으로 추정돼 군산해경은 사고현지로 3,000t급 경비함 1척을 급파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오후 5시 30분께 중국 MRCC측은 “사고발생 3시간 후인 오후 5시20분께 A호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한 선원을 발견해 구조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해경에 통보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사고 선박이 침몰했지만 인명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우리 해역에서의 외국적 선박에 인도적 지원과 구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전주 원도심, 마을축제로 활기

전주생태박물관서 승암마을 새뜰마을축제 노송동 1004축제 · 완산동 · 팔복동도 인기

급격한 도시개발로 행정기능이 이탈하고 주거기능이 약해지면서 침체된 전주 원도심 지역이 주민 주도의 마을단위의 축제들이 잇달아 열리며 활기를 되찾고 있다.

전주시는 23일 전주생태박물관 앞에서 승암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흥겨운 음악소리와 주민들의 배부른 웃음소리로 가득채우는 승암새뜰마을 마을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승암새뜰마을 조성사업’의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 진행된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을 함께 되돌아보고 주민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겨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주민체험 프로그램으로 △심시일반 음식 나눔 △김놀이 공연 △주민 노래자랑 등 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마을축제로 진행된다. 전주 원도심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주도하는 마을축제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진북동, 인후1·2·3동 등 7개 천사마을 주민들은 전주시 노송동에 해당 지역이 이어지고 있는 ‘열굴 없는 천사’의 선행을 기리고,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천년전주 천년사랑 축제’를 열고 있다. 또, 노송동지역발

전협의회와 전주중초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등 노송동 주민들은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전주에서는 처음으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마을재생 박람회를 열기도 했다.

또한 승암마을과 같이 새뜰마을 사업이 추진되는 팔복동 노후주거지 주민들도 지난 6월 팔복새뜰마을 축제를 열고,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주민역량을 결집시키기도 했다.

원도심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계획을 수립해온 완산동 주민들은 22일 마을계획 수립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마을총회를 마을축제의 형식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출발점이다”며 “전주시 원도심지역을 시민들이 살기 좋은 공간으로 재생할 수 있는 방안을 주민들과 함께 모색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승암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2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 도시 새뜰마을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19년까지 국비 28억원(70%지원) 등 총 40억원을 투입해 기초인프라정비, 주민역량강화 및 마을공동체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